


# 제48회 동국대학교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 작품집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차례

- 시 부문 장원 (정지란, 「이웃집」) .....	3
- 시 부문 수상 소감 .....	5
- 시 부문 심사평 .....	6
- 소설 부문 장원 (김수현, 「이웃집」) .....	7
- 소설 부문 수상 소감 .....	10
- 소설 부문 심사평 .....	12
- 수필 부문 장원 (김윤경, 「이웃집」) .....	13
- 수필 부문 수상 소감 .....	15
- 수필 부문 심사평 .....	17

- 시 부문 장원

## 이웃집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3학년 9반

정지란

그들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물가에 줄지어 선 포플러들도

가끔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답답한 속을 풀어헤치고

혼잣말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포플러 이파리가 펄럭거리며

새하얀 말들을 쏟아내는 강변길

이웃집 부부는 구불거리는 거리를 두고 걸었다.

첫 돌이 지난 아기를

포대기에 들쳐 업은 젊은 아내와

신이 넘은 남편은 말이 통하질 않았다.

포플러 이파리가 하얗게 뒤집히면서

쏟아내는 말을 들으며

거리를 두고 걸었다.

그렇다고 그들 사이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아내는 남편의 축 쳐진 어깨를 보며

손각지 낀 손으로 아기를 뒤로 껴안았다.

남편은 멀찌감치 떨어진  
아내를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마다 아내도  
걸음을 멈추었다.

무거운 비닐봉지를 양손에 든 남편과  
아기를 업은 아내가 장을 봐  
과수원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아기가 칭얼거리자  
남편은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이방인 아내에게서  
아기를 받아 안았다.

포플러 이파리가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면서 빛나고 있었다.

## -시 부문 수상소감

제가 쓴 시가 인정을 받아 기뻐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이 불려지고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를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꿈에 그리던 장면이었지만 현실이 되니 믿을 수 없었지요.

부모님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이주여성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농촌 노총각과 국제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농사일을 거드는 분들입니다. 엄청난 나이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는 물론 말이 통하지 않아 한국 생활에 적응이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저보다 몇 살이 많은 이주여성 분이 아이를 업고 나이 많은 남편과 강변길을 걸어가는 풍경을 시로 써봤습니다. 장을 봐 돌아오는 부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남편이 멈춰서면 부인도 함께 멈춰 섰지요. 그들 사이도 콘크리트 벽이나 담으로 가로막힌 이웃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포플러 이파리들이 나부끼는 강변길을 걸어가는 그들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등에 업혀 잠이 든 아이가 깨어나 칭얼거리자, 단숨에 달려간 아빠가 아이를 안아들었지요.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부부가 웃음 짓던 모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모습 잘 관찰해서 시로 쓰는 작업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안겨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찬란한 문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부모님 말씀을 떠올리고,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자세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비유와 구성이 뛰어난 정지란의 작품  
-시 부문 심사평

운문부문에 참가한 학생들의 작품 가운데 기량이 뛰어나고 일정한 성취를 보이는 것들이 많았다.

비유와 구성이 뛰어난 정지란의 「이웃집」을 장원으로 뽑았다. 정지란은 인물과 풍경을 나란히 놓으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힘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인물과 풍경 사이의 간극을 서정적 정조를 가득 채우고 있다. 거리를 좁히지 않고 걷는 부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포플러나무, 거기서 발견한 인생의 원리를 잘 포착하고 있다. 시에서 이야기를 통제할 줄도 알아 도입부에서 정적이던 흐름이 후반으로 가면서 동적으로 변하고 마지막에서 포플러나무의 이파리가 빛을 내면서 절정을 맞는다. 읽는 즐거움을 주는 빼어난 수준의 작품이다.

차상으로 뽑은 고영경의 「이웃집」은 가로등에 붙어 있는 사람 찾는 광고에서 창작동기를 가져온 것이다. 시적 구성을 안정되게 하고 이야기를 무리 없이 끌어가는 능력이 돋보인다. “가을바람에 시는 단풍잎”, “외투 같은 무거운 오후”, “사연이 폐지처럼 쌓여 있”다는 등의 독특하고 빛나는 비유가 믿음을 준다.

차하로 뽑은 진다솔의 「이웃집」은 자궁 근종 수술을 한 어머니에게서 발상을 가져와 상상력을 전개시키고 있다. “어머니의 사라진 나팔관이/ 창문을 타고 자라날 것 같다”라든가 “때로는 텅 빈 집일지라도/ ... / 그녀의 집엔 내력이 있다”는 표현들이 압권이다.

차하인 김태형의 「이웃집-안산파크 라동 302호」는 비와 반월공장에서 손가락을 “프레스기로/ 찍어 누른 남자”의 정조를 상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밤마다/ 그의 방에는 우기가 온다”는 상징처리를 통해 시 전체를 슬픈 정조로 채색한다. 기후와 공간설정, 인물의 심리를 잘 형상하고 있다.

이번 문학콩쿠르에 참가한 입상자를 포함한 참가자들 모두의 발전을 빈다.

심사위원 윤제림·공광규

- 소설 부문 장원

## 이웃집

혜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3번

김수현

이웃집 난간에는 오늘도 남자 속옷이 널려 있다. 마른 속옷도 있고 아직 물기에 젖어 축축한 속옷도 있다. 축축한 속옷에서는 물방울들이 툭툭 떨어진다. 우리 집은 속옷을 너는 집의 바로 옆집이다. 따라서 속옷들을 지나쳐야만 한다. 난 입을 찔룩거리며 널려 있는 속옷들을 지나친다.

문을 열자 이곳저곳에 배어있던 어둠이 밀려나온다. 엄마는 집에 없다. 아무래도 이웃집으로 화투를 치러 간 모양이다. 바느질 상자 위에 늘 자리 잡고 있던 화투판이 없기 때문이다. 엄마는 화투판과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인다. 매일 아침 한 시간 동안 머리를 말고 화장을 하는 엄마. 언제부턴가 엄마는 이웃집과 친해지더니 화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엄마는 거의 돈을 잃고 나온다. 그럴 때면 늘 나에게 짜증을 내곤 한다.

치마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 요즘 들어 자꾸만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때, 문을 쿵, 하고 세계 닫는 소리가 들린다. 화투판에서 지고 온 엄마가 자주 하는 행동이다. 엄마는 내 방문을 열더니 안방으로 나와 보라고 한다. 난 조심히 나가 엄마 앞에 앉는다. 엄마는 다짜고짜 언제 시집 갈 거냐고 닥달한다. 예상치 못한 엄마의 공격에 당황해서 우물쭈물 거린다.

“삼십대 중반이나 되어서 남자 하나도 없니? 주미 엄마가 오죽하면 이미 한 번 결혼한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니?”

엄마는 내 자존심을 박박 긁는 소리를 한다. 난 갑자기 부아가 치밀어 방으로 들어간다. 엄마의 목소리가 방문을 통과한다. 난 침대에 앉아 귀를 막는다. 거울이 내 얼굴을 비춘다. 언제부터인가 주름들이 내 얼굴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튀어 나온 뺨살이 축 늘어져 있다. 붉은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인다.

마트 일은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나뉜다. 난 오전 타임이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난 이웃집 남자애와 잘 마주친다.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 이웃집 난 간에 널려 있는 속옷 중에 남자애의 속옷도 있을 것이다. 남자애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웃집에 속옷을 난간에 너는 이유는 집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웃집은 아이들이 네 명이나 되었고 식구가 많으니 베퉼다가 좁을 만도 하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떡을 돌리며 이해 좀 해달라고 했다. 이웃집과 친한 엄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윤아, 이웃집 재민 엄마가 애들 속옷을 밖에다가 널잖아. 그 고등학생 애 말이야, 재민

이. 아무튼 어제 그 애 속옷을 넣어 놔는데 누군가가 모두 훔쳐갔대.”

그 애 이름이 재민이었구나. 난 한참이나 뜬눈이 자다가 엄마에게 설렁설렁 답했다. 엄마는 내 시큰둥한 대답이 못마땅한지 얼굴을 찌푸린다. 도대체 범인이 누구일까. 엄마는 탐정이라도 된 듯 눈을 밝힌다. 그 아주머니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난 이렇게 되묻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또 없어졌단다,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내게 엄마가 말한다. 착각이라도, 나를 보는 엄마의 시선이 느껴진다. 이번엔 정말 착각 아니야. 남편 속옷, 그 아래 동생 속옷도 같이 넣어놓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재민이 속옷만 쪽 골라가더라. 아무래도 변태 같다니까. 방 안에다 널면 습기랑 잘 공간이 없다고 하고, 이웃집에 맡기는 것도 번거롭고……. 참 고민이야, 고민. 엄마는 걱정된다는 어투로 말한다. 우리 집보다 남의 집을 걱정하다니, 엄마도 참 우습다. 도둑질은 몇 번이나 반복됐다. 재민이가 수치심을 느낀다고, 엄마는 그 애가 진짜 자식인 것처럼 걱정한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간다. 오늘은 속옷이 아주 조금 널려 있다. 전부 지금 널은 것인지 물이 푹푹 떨어진다. 집 열쇠를 찾는 사이 이웃집에서 누군가 나온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 그 재민이다. 집에서 나온 아내는 나를 빤히 쳐다본다. 우리에게 간혀 있는 동물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 난 서둘러 가방에서 열쇠를 찾은 뒤 집 안으로 들어간다. 엄마는 집에도 이웃집에도 없는 모양이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아이의 눈이 사이렌처럼 내 눈 앞에 사라졌다가 나타난다.

이웃집이 속옷을 널지 않은 그때부터 엄마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내가 퇴근할 시간에 원래 이웃집에 있어야 할 엄마가 이제는 집에 있다. 엄마는 가끔 내게 화투를 같이 치자고 한다. 엄마, 요즘 왜 이웃집에 안 가? 화투를 치며 엄마에게 묻는다. 그러게 말이다. 사람들이 화투에 대한 재미가 떨어졌는지 모이지 않네. 재민 엄마는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부르지도 않아. 속옷 때문에 그런가? 엄마는 화투판을 접으며 말한다. 이젠 이것도 재미가 없네. 이제 재민이네가 속옷 바깥으로 안 너는 것 같다. 내 퇴근 시간과 이웃집 큰 애의 하교 시간이 같은 건지 그 애와 자주 마주친다. 그 애는 내 시선을 자꾸만 피한다. 내게 잘 못 한 것이라도 있는지 나와 도통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새로 들어온 물건 때문에 일이 늦게 끝났다. 시계를 보자 평소보다 삼 십 분이나 늦었다. 재빨리 뛰어 집으로 간다. 오늘은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꼭 물어봐야겠다.

집 문을 연다. 현관문 바로 앞에 엄마가 있어 깜짝 놀란다. 엄마는 내 손목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려간다.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다. 엄마는 내 치마를 끌어 내리더니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한다. 거울에 내 뭉툭한 다리가 적나라하게 비친다.

“세상에. 이게 뭐니. 내가 정말 창피해서……. 재민 엄마가 날 피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재민이가 네가 물기 있는 속옷을 집 안으로 들고 가는 거 다 보았다. 이래서 빨리 결혼을 시켜야 했던 건데……. 네 방에서 그 속옷들이 나오더라.”

엄마는 직접 보라며 거울을 가까이 댄다. 남자 속옷을, 이웃집의 사라진 속옷을 입고 있는 내가 보인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남자 아이의 얼굴이 거울에서 아른거린다. 이웃집 아



이는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었었다. 난 내가 입은 이웃집 아이의 속옷을 꼭 집는다. 이웃집 아이의 속옷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다.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진다. 이웃집, 이웃집, 이웃집 ..... 자꾸만 미소를 짓게 된다. 폭 내려앉은 뺨살, 주름 있는 얼굴, 뭉툭한 다리가 베란다 창에 비친다. 난 입을 씹룩거린다.

## - 소설 부문 수상 소감



펜을 잡고 글을 쓴지 어느덧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 년 반이라는 그 시간 속에는 백일장을 다니면서 누렸던 기쁨들과 수많은 눈물들이 가득합니다. 작년에도 동국대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예선에 운 좋게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렌이라는 시제를 받고 글을 쓰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원고지에 글을 쓰려고 하는 순간 수전증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순 엉터리인 글을 내버렸습니다. 예선 작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백일장 작품. 너무나도 후회가 남아 집에 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동국대를 나오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던 이 학년 시절의 제가 떠오릅니다.

대학을 일 년 앞서 간 한 선배에게서 지방에 내려가면서까지 백일장을 다니는 시절이 너희들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저희를 응원해준다고 한 말인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씩씩해졌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지방으로 향하던 발걸음들과 설렘 들이 모두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심장이 팬스레 떨립니다.

올해 동국대 문학콩쿠르에 예선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작년의 떨림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후회 없이 쓰자고, 다짐을 하며 동국대 본선에 갔습니다. 이웃집이라는 시제는 사이렌이라는 시제만큼이나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면 서의 다짐 때문인지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펜을 잡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친구와 도시락을 받고 나올 때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입 밖으론 망했다, 망했다 했지만 속으론 내심 기뻐했습니다.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후회 없이 깨끗한 글을 써냈기 때문입니다. 시상식 때

제 이름이 불릴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시 부분에서 차하를 받은 친구의 상장을 구경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축하한다는 수많은 문자를 받고 나서야 상을 받았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축하해, 잘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부끄러워집니다. 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전 앞으로도 깊은 글을 쓸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글을 쓰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를 믿어주셨던 부모님, 동생, 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그리고 김현정 선생님, 금동현 선생님, 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윤슬 문학회, 지방에서 힘들다고 문자했을 때 응원해주던 친구들, 늘 고마운 영현이, 수진언니(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친구들과,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 -소설 부문 심사평

본선에서 읽은 소설 대부분은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소설에 있어 인물(성격)이 중요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설은 인물만이 아니라 공간이나 구성도 제대로 갖추어야만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문장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독서량의 부족에서 오는 이유가 크다. 소설에서의 대화도 엄연한 텍스트의 일부이다. 따라서 대화도 함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가공이나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대화를 남발하는 응모작들이 많았다.

차라를 받은 계원예고 3년 김연준의 소설은 ‘한 때 사랑하던 아내를 불의의 사고 이후 완전한 타인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였는데, 남성의 이기적 삶을 통해 아내마저 타인으로 바꾸는 시도가 좋았다. 그러나 아내가 타인으로 변하는 과정이 조금 급작스러운 것이 아쉬웠다.

안양예고 3년 김태현의 소설은 아버지를 ‘지킬 박사과 하이드’로 표현한 발상이 좋았다. 그러나 착하게 마무리 짓는 결말은 참신한 발상에 비해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차상을 받은 고양예고 3년 이은선의 소설은 뱀과 뱀꿈으로 표현되는 환성성으로 남편의 의도를 에둘러 말하고 있는데, 환상성을 이끄는 여주인공의 심리적 묘사가 돋보였다.

장원을 받은 혜화여고 김수현의 소설은 속옷을 훔치는 노처녀에 관한 이야기다. 익살스럽고 능청맞은 인물의 성격 구현도 맛깔스러웠고 속옷이라는 소재를 결말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도 좋았다.

심사위원 장영우·박성원

- 수필 부문 장원

## 이웃집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윤경

우리 이웃집에는 조금 독특한 이웃이 살고 있다. 바로 여덟 살 난 꼬마 비행기다. 매주 주말 저녁, 식사를 하기 전 가벼운 공복감과 무료함이 느껴질 무렵이 녀석이 이륙 시간이다. 한동안 쪽 비어 있던 건양빌라의 202호에 비행장이 들어선 것은 한 달 전의 일이다.

어느 한가한 주말 오후 201호인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푹푹, 이 아닌 쿵쿵, 하는 꽤나 둔탁한 소리였다. 거실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던 나는 서둘러 현관문으로 달려 나갔다. 현관문이 살짝 열린 틈새로 축구장의 잔디처럼 뾰족뾰족하게 돋은 밤톨머리에 까만 눈을 가진 녀석이 서있다. 녀석은 인사도 없이 불쑥 플라스틱 접시를 내밀었다. 따끈따끈한 김이 나고 있는 팔떡이었다. 아, 네가 옆집으로 이사 온 꼬마니? 하고 물으려는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녀석은 후다닥 자기 집으로 뛰어 들어 갔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구나.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문을 닫았다.

녀석이 건네준 팔떡을 받아 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저물어가는 주말 저녁, 이제 또다시 첩바퀴처럼 돌아갈 일주일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우물우물 떡을 씹으며 자습서를 펼쳤다. 그때였다. 옆집과 맞닿은 창가 쪽에서 별안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커다란 고탐소리 같기도 했고, 소리가 잦아들 무렵에는 그것이 신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이이이이잉. 조금씩 조금씩 고조되는 목소리는 흡사 바람을 가르며 무언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찌됐든 그 알 수 없는 소리는 거의 삼십 분 동안이나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여서 그랬는지, 짜증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처름에는 말이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는 평일에는 그 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친 심신을 축쉬어야 할 주말 저녁만 되면 그 소리는 어김없이 창가를 타고 들려왔다. 마냥 호기심만 일던 그 소리는 주말이 반복될수록 듣기 싫은 비행장의 소음으로만 들렸다. 분명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기에, 나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옆집 사람들을 만나면 몇 번이나 그 소리에 대해 물으려고 했다. 특히나 가장 만만한 그 통통하게 살이 오른 꼬마 녀석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우연찮게 녀석과 마주칠 때마나, 녀석은 쓰레기 봉지를 뒤척이다 걸린 도둑고양이처럼 재빠르게 제집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는 사이, 시험 기간이 다가왔고, 마침내 내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버렸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웠던 그날 저녁, 나는 한창 수학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역시나 여느 주말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풀리지 않는 한 문제 때문에 끙끙 앓던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오늘이야말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의 근원지를 밝히려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옆집 문을 힘껏 두드렸다.

“저기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린 틈새로 한 아주머니가 미안한 얼굴을 하고 서계셨다.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미안해요, 학생. 우리 애 때문에……. 실은 우리 애가 좀 유별난 장애를 앓고 있어서…….”

꾸벅 고개를 숙이는 아주머니의 말쑤에 나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녀석은 틱(Tick)장애를 앓고 있었다. 뚱뚱한 몸집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매일 저렇게 비행기 흉내를 낸다고 했다. 비행기요? 나는 영문을 몰라 되 물었다.

“우리 애 꿈이 비행기예요. 파일럿도 아니고, 비행기. 웃기죠?”

아주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말씀하셨다. 아주머니 너머로 양 팔을 활짝 벌리며 흡사 비행기 모양을 취한 채 힘껏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녀석이 보였다. 발그레하게 상기도니 녀석의 뺨을 보자, 나는 어쩐지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비행기가 되겠다는 녀석의 꿈은, 작가가 꿈인 내가 ‘글’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다. 우습기도 하면서 무언가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느낌표는, 방금 전까지 나를 끔끔 앓게 만들었던 수학에서의 팩토리얼이 아니었다. 단지 비행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그 자체가 되겠다는 녀석이었다. 그동안 내가 무언갈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만 마냥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글’이 되고 싶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자 그저 통통하게만 보였던 이웃집 꼬마 녀석이 한없이 늙름하게만 보였다. 녀석은 이제 시끄러운 소음이나 만들어내는 골치 아픈 옆집 꼬마가 아닌, 널따란 이륙장을 내달리다 마침내 떠오르고 마는, 꿈이 있는 다부진 이웃집 꼬마 비행기였다.

요즘도 주말 저녁이면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에도 민감한 이웃집 고3 누나의 마음은 아랑곳 않는 커다란 시동 소리가 들려온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곧장 쥐고 있던 펜을 놓아두고 자리를 박차겠지만, 지금은 그 시간을 내 휴식시간 삼아 보내고 있다. 이이이이잉, 하고 점점 더 커지는 녀석의 엔진소리를 따라, 나도 손가락으로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녀석과 함께 이륙하는 시늉을 하곤 한다. 나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미소를 숨기지 않으면서 말이다.

오늘도, 이웃집 202호에서는 꼬마 비행기 한 대가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 - 수필 부문 수상 소감



문학콩쿠르 백일장이 열리기 전날 밤까지, 저는 긴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쳐버린 제 심신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은 때때로 조바심이라는 녀석으로 이름을 바꿔 쉴 새 없이 제 자신을 닦달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단어든, 어떤 문장이든 한 글자라도 더 써보라고 재촉하며 깜빡거리는 마우스 커서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울까, 언어영역 비문학 독해 문제를 더 풀까. 대한민국 고3인 제가 글을 쓴다는 것은, 시시각각 찾아오는 갈등을 참고 견디는 것, 그 갈등이 풀어질 즈음부터 찾아오는 문학에 대한 갈등을 푸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조바심을 접어두고, 갈등마저 까맣게 잊고 오로지 목이 바싹바싹 타오르는 갈등만을 기억하고 백일장 당일 시제였던 ‘이웃집’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수필에서, 삼년 내내 버리지 못했던 욕심을 버리고 글을 썼다는 것이 상을 탄 것보다 더 기쁩니다. 비로소 기나긴 악몽에서 깬 것 같습니다.

욕심 없이 썼기에 어찌면 더 부족해보일지도 모르는 글을 읽어주시고 큰 상까지 안겨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프신 와중에도 수상 소식에 함께 기뻐해주신 장희정 선생님과 언제나 ‘우리’ 문창과를 위해 애쓰시는 이한공 선생님, 항상 제자들과 나란히 발맞춰 주시는 담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마운, 삼년 내내 함께 하고 있는 고양예고 문우들. 너희들이 없었다면 이 치열한 성장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마지

막'이 언젠지는 아직도 어렴풋하게만 느껴지지만 끝까지 같이 달려보자. 늘 사랑하고 있어.

벌써 반이나 지나버린 일 년이지만, 전 이제야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촌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말이지만, 꼭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 - 수필 부문 심사평

많은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작품을 써서 반가웠다. 그러나 제목(이웃집)이 주는 강박감 - 갈등과 화해의 도식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수상작들은 이런 점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장원(김윤경)은 Tick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소년에 대한 애정을 통해 이웃집과의 화해라는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차상(주영상)은 외국인 가정에 초대된 것을 계기로 민족적 편견을 반성하고 있다.

차하(오지수)는 이웃집 할머니가 끓이는 청국장 냄새를 매개로 부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잘 그렸다.

차하(우마루내)는 옥상에 머물다 끌려간 노숙자에 대한 회상을 통해 삭막한 세태를 반성하고 있다.

심사위원 최순열·고재석